## 사무직 여성 1991년 가을호 통권 6호

<여성풍속도>

# 반바지 유감

이수미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몇 년 전만 해도, 치마인지 바지인지 구별이 안 되어서 일명 ‘치마바지’라고 불렸던 큐럿 스커트를 입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 사람은 종일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여사원들의 옷차림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우리 회사임에도, 청바지출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예의 그 치마바지에만큼은 인색했었다. 그날 치마도 아니면서 바지도 아닌 것을 차려입은 화제의 주인공은 급기야 부장님의 따가운 훈시까지 들어야만 했다.

“○○씨, 제발 그 옷만은 입지 말아주세요”

본질에 있어서는 반바지와 같으면서, 그때만 해도 반바지는 운동복쯤으로만 여겨졌기에 교묘하게 치마로 위장되어 등장한 것이 치마바지였다.

그러던 것이 요즘엔 그 어중 띤 형태를 털어버리고 본격적인 반바지패션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아직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치마바지가 이젠 고전적인 느낌마저 풍기니 이것을 두고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 까. 점잖은 부장님의 훈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남보다 시대를 앞서간 감각 때문에 우리의 여주인공은 먼저 홍역을 치렀을 따름이다.

**반바지만큼 편한 옷이 또 있으랴!**

올 여름은 가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반바지패션의 완성기였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6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단지 그 길이의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 반바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즐겨 입는 대중적인 옷차림이 되었다.

어떤 날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종종걸음을 치다가 문득 눈길을 잡아끄는 뒷모습이 있어 시선을 준 적이 있다. 거기에는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의 시커멓게 드러난 울퉁불퉁한 종아리가 있었는데, 웬걸 흉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신선하게 느껴졌다(그 순간의 느낌을 가식 없이 표현했다는 점에 유의했으면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머잖아 남성들에게까지 반바지 출근이 보편화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옷차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패션 감각이 한참 떨어지는 나로서는, 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바지 두벌로 올 여름을 거뜬히 넘겼으니 반바지 예찬론을 편다 해도 시원찮은 일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여성들, 특히 직장여성들에게 반바지만큼 편한 옷이 또 어디 있으랴. 치마 입을 때 이런 저런 속옷 차려입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여주지, 공공장소에서 행여 앉기라도 할라치면 그 순간부터 좌불안석이 되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해방시켜 주지, 급할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뛰게 해 주는 기동성까지 발휘해 주지, ‘치마 입은 족속들은 어쩔 수 없어’하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 그 장점을 열거하려 든다면 결코 한두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거리를 휩쓴 아슬아슬한 반바지**

이렇게 보면 반바지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가장 걸 맞는 실용적인 측면들을 골고루 갖춘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바지가 의복의 또 다른 기능인 미적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선 반바지는 옷차림으로 좀더 젊게 보이려고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는다. 반바지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나이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몇 년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60대 할머니가 반바지를 입었을 경우, “ 저 할머니 상당히 세련됐네. 어쩜, 반바지를 입으셨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고, 10대 소녀는 발산하는 젊음의 강도를 몇 배 더 놓여 준다는 점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옷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이 옷 그 자체로서 생겨지기보다 같은 옷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차려입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무릎 아래를 거의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반바지 패션은 무엇보다도 늘씬한 종아리와 어울릴 때 그 진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겠다. 요즘 한창 발랄한 세대인 10대에서부터 갓 20대를 넘긴 소녀들은 6,70년대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지 한결같이 훤칠한 키에 가는허리,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한다. 이렇게 그들이 갖춘 체형 적 조건은 반바지가 급속하게 유행의 물결을 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 같다.

반바지의 형태도 다양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평범한 스타일에서부터 한 뼘 길이가 채 될까 말까 한 초미니 반바지, 카우보이 복장을 변형한 듯 아랫단을 갈가리 찢어발겨 결과적으로 초미니 반바지의 효과를 의도한 듯한 청반바지, 멀리서 보면 마치 맨다리 무릎 아래를 뎅강 잘라버린 스타킹을 신고 있는 듯이 보이는 쫄쫄이 반바지 등, 그 방면으로 식견이 모자라서 그렇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반바지가 있다.

팔등신의 미녀가 미끈한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의 2/3을 다 드러낸 아슬아슬한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 혹은 사무실안을 누빈다고 가정해 보라.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실제로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일 뿐이다. 같은 여자의 눈으로 보아도 때로 감탄을 자아내는데 하물며 나른한 오후 어디 눈요깃감이라도 없을까 하며 눈알을 부라리고 다니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랴.

**스스로 덧에 빠져들게 하는 파격성**

이제 이 글의 제목을 차근히 되새겨 볼 때가 온 것 같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나는 서투른 의상학의 개념까지 도입하여 어설픈 반바지 론을 지루하게 끌어왔던가.

나는 반바지의 효용성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반바지가 분명코 여성들,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모로 편리한 구석이 있지만, 실용성을 넘어서서 반바지의 지나친 형태의 파격성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온 여성 억압의 교묘한 덫에 스스로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다.

행여 속옷이라도 삐져나오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의자에 앉으면 허벅지를 조여 주는 스타킹의 밴드라인이 그대로 드러나서 보는 이의 시선을 무안하게 할 정도라면, 그것은 의복의 실용성도, 아름다움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성적 자극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영화 공과에나 등장할 법한 차림으로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과연 일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추측컨대 반바지 패션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듯싶다. 나 또한 올 여름 반바지 덕을 톡톡히 보았기에 또다시 반바지를 찾아 토요일 오후 남대문 시장을 기웃거릴지도 모르겠다.

반바지를 즐겨 입을 예정인 많은 여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노스타킹이 울 스타킹으로 둔갑하여 밴드라인 흉측하게 드러내는 일이 사무실 안이건 지하철 안이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